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8, VOL. 31, No. 2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18.31.2.073

영월군 家傳『察病要訣』에 대한 연구

[1]구민석, [2]김민선, [3]이향영, [4]차웅석, [4]김남일
[1]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2]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3]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역사학과, [4]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he Study on the *Chalbyungyogyul* (察病要訣), Discovered in Yeongwol-gun

[1]Minseok Ku, [2]Minseon Kim, [3]Hyang-Young Lee, [4]Wung-Seok Cha, [4]Namil Kim
[1]*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2]*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3]*Dept. of History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4]*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Chalbyungyogyul (察病要訣) is a book of Korean Medicine which contains simple knowledges combined with experienced prescriptions.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a manuscript of *Chalbyungyogyul* handed down in a family in Yeongwol-gun and analyze the Eui'an (醫案) in it. This book includes common sense in medicinal herbs and 142 cases of Eui'ans. The Eui'ans in *Chalbyungyogyul*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Some Eui'ans state miraculous effects. External medical treatments are used in another group of Eui'ans. In the other Eui'ans, prescriptions composed by a single herb are applied. Thes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preexisting Eui'ans in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which mainly include complexly prescribed internal medicines and medical discussions. This book vividly describes medical practice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shows the realization of theoretical writings. Above all, it is a valuable discovery of Eui'an compilation which is rare in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Eui'an (醫案), Medical cases, *Chalbyungyogyul* (察病要訣)

Ⅰ. 서론

본고는 강원도 영월군의 한 가정집에 소재해 있는 家傳 필사본『察病要訣』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은 필자 중 한명이 2017년 초 지인의 제보로 방문하게 된 한 가정집에서 발견하였는데 30여 종이 넘는 고서들과 함께 쌓여있었다. 필자는 여러 고서들을 함께 둘러보던 중 이 책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을 학계에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일찍이『찰병요결』이라는 동명의 제목을 가진 책은, 韓醫古書에 대한 특집 기사에서 안상우가 "의원들이 임상에서 익히 알아두고 응용할 만한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요령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엮은 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1] 그는 이 책의 사본류가 제법 많은데 1930년 대구 在田堂書舖에서 발행한 신식연활자본의 내용이 가장 정연하다고 소개한다. 실제로『찰병요결』이라는 제목의 책은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교의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고, 古醫書를 취급하는 서점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병증과 원인을 외우기 쉽도록 맞대응시켜놓은 四言絶句의 문장이[2]『찰병요결』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필사본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다른 의서나 필사본 서적에서도 부록과 같은 형태로 종종 인용되었다.[3] 이로 미루어 볼 때 '찰병요결'은 고

접수▸2018년 11월 13일 수정▸2018년 11월 30일 채택▸2018년 11월 30일
교신저자▸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

1) 안상우 (2016년 10월 13일) "고의서산책309 察病要訣"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9> (2018년 11월 27일)
2) "手足麻痺, 風與寒濕, 手足寒冷, 命門火虛, ……" 등의 문장이 그 예시이다.
3)『濟世寶鑑』과, 최근『輕寶新篇』으로 알려진『經驗方』이 그 예이다.『제세보감』은 文基洪의 저서로 1932년 4월에 출간되었으며 후편에「찰병요

유한 書名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단위의 篇名으로도 볼 수 있다. 단 「藥性歌」나 「傷寒賦」가 그러한 것처럼, '찰병요결'도 때로는 書名으로 때로는 篇名으로 등장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찰병요결』 역시 '찰병요결'이라는 篇을 싣고 있긴 하나, 이는 이 책의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기존에 『찰병요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언절구의 문장만을 이 책의 전부라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 오히려 이 책의 대부분은 『東醫寶鑑·湯液篇』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과 약재에 대한 상식과 민간 경험, 즉 다수의 方文과 醫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찰병요결』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

특히 이 책을 주목할 만한 이유는, 그 안에 다수의 의안이 수록되어 있어 독자들이 당대의 의료를 보다 사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의서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사변적인 문장들과 달리, 의안은 실존했던 환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한국의학사에서의 의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 책은 주목할 만한 사료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이 책을 학계에 보고하여 후행연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Ⅱ. 본론

1. 발굴 배경 및 서지사항

이 책은 현재 강원도 영월군의 한 가정집에 소재해 있다. 소유자는 가전되어 온 고서들을 보관 중이며, 이 중에는 의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필자 중 한명은 2017년 2월 지인의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고서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소유자의 정보에 의하면 이 고서들은 시아버지의 유품이다. 시아버지 石營基(1914-1980)씨는 潮州石氏 尙書公派 14대손으로,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서 고령당한약방을 운영한 바 있다.[4] 소유자는 시할아버지 石載勳(1886-1954)씨 역시 의약업을 하였으며 석영기씨는 가업을 이은 것이라고 전하지만, 아쉽게도 시할아버지에 대한 문헌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5]. 소유자는 다수의 가전 고서들이 석재훈씨 때부터 축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전 고서들은 약 30여 종으로, 의서 외에도 시, 소설, 사주관상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東漢演義』, 『三國志』 등의 소설과 다수의 시집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원소유자인 석영기씨나 그의 선친은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의서로는 『찰병요결』 외에도 『濟衆新編』, 『方藥合編』, 『扁鵲心書』, 『藥性歌』, 『靑囊訣』, 『醫學入門』, 『東醫寶鑑』, 『黃帝內經』 등 저명한 의서가 대부분인 까닭에, 연구자는 자연스레 『찰병요결』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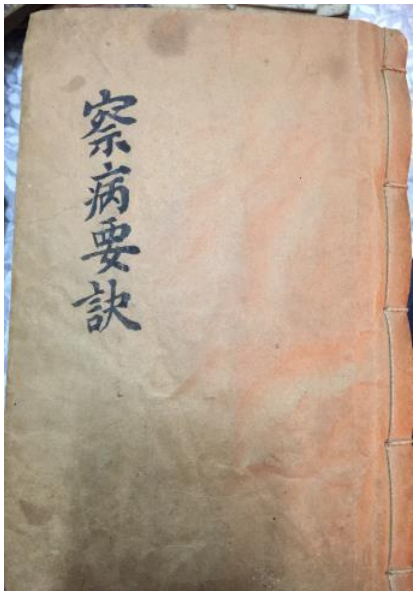

그림 1.『찰병요결』의 표지

결」을 덧붙였다. 『경보신편』으로 알려진 『경험방』은 서두에 「찰병요결」이 등장한다. 해당 서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한다. (구현희. 「일제강점기 임상한의서 『제세보감』 연구 - 『방약합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35-47. 구민석. 「『輕寶新篇』의 醫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16-17.)

4) 가전되어온 자료 중에는 1972년 4월 12일 강원도지사 박종성씨가 발행한 한약업사허가증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석영기씨는 강원도 제 2호 한약업자이다.

5) 『潮州石氏世譜』를 통해 생몰년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가하면 石載昊(1870-1914)씨는 석영기씨의 큰아버지로, 의생면허를 획득한 인물로 추정된다. 비록 『조주석씨세보』에서는 그의 생몰을 1871.5.15.-1913.9.15로 기록해두었고,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1870.3.2.-1914.9.17로 기록하여 1년여의 차이는 있으나, 당대의 출생, 사망 신고가 즉각적이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 (1915년 1월 12일 730호)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http://gb.nl.go.kr/Default.aspx> (2018년 11월 27일)) 결정적으로 『世譜』에 기록된 석재호씨의 묘와 관보 상에 등록된 석재호씨의 주소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로 동일하다. 단 석재호씨와 석영기씨가 비록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 본서의 원소유자, 저자, 필사자 등에 대한 추정과는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히 검토되길 기대한다.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18.31.2.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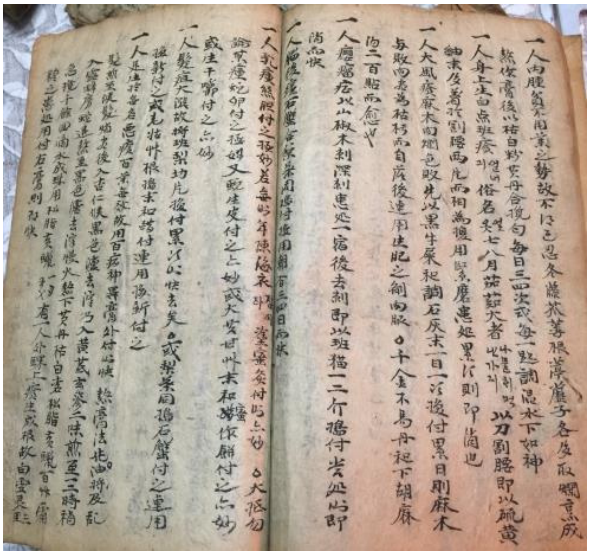

그림 2. 『찰병요결』의 본문

『찰병요결』은 175×265(mm)의 크기이다. 표지는 얇은 종이로 덧씌워져 있는데 속지와는 재질이 다르고, 종이의 상태를 볼 때 비교적 최근에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이 덧붙여진 종이 위에 '察病要訣'이라고 書名이 필기되어 있고, 간행연월이나 저자 등을 표기한 글자는 없다. 이 책은 五針眼釘法으로 線裝되어 있다.

이 책의 분량은 162쪽이지만, 뜯어진 판심 뒷면에도 필기가 되어 있으므로 들고남이 있다. 필사본이므로 無郭, 無絲欄, 無線, 註雙行이며 行字數未詳이다(그림 2). 서발, 범례, 목차 등이 없고, 표지 이후에는 필사자의 의도에 따라 의학적인 내용이 바로 필기되어 있다. 이 책은 거의 한자로 쓰여 있으나, 필기 중간에 한글로 서술한 부분이 있어 눈에 띈다.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책의 저자와 필사 시기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 단 책의 전반적인 상태, 원소유자에 대한 정보, 함께 보관되고 있는 책들[6]로 추정해본다면, 이 책은 일차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형성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동명의 『찰병요결』이 1930년 대구 在田堂書舖에서 출간된 사실과, '察病要訣'을 수록하고 있는 『濟世寶鑑』이 1932년 4월에 출간된 점 역시 연대추정에 참고할 만하다.[7]

이 책의 필사자가 역대 소유자 중 한명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필사자와 저자가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 唐石硫黃을 술에 담가두었다가 따뜻하게 복용하여 兩日虐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본문의 문장을 주목할 만하다. 이 치료법 이후에 "無人不差, 故筆記"라는 한 문장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8] "상기의 치료법으로 치료되지 않았던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을 필기했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 이 책을 필사한 사람이 저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9] 단 저자와 소유자의 관계는 불명확하며 추후에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2. 『찰병요결』의 구성

이 책은 서발, 범례, 목차 등 없이 표지 이후에 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 내용은 方文, 本草, 藥材常識 등의 내용이 대다수로, 20세기 초에 보고된 보편적인 '경험방'들처럼, 두서없이 필사자의 취향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듯하다. 본문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10]

표 1. 『찰병요결』의 개요

번호	분량(pp)	소제목	상세내용
1	1-2	醫藥 雜記	眼痔, 小兒淋疾, 痲目疾, 落傷瘀血藥法, 當歸補血湯, 加減正氣散, 淸胃瀉火湯, 雜氣別方
2	3-6	制藥方法	論君臣佐使, 論藥有陰陽配合, 子母兄弟服藥法, 五味藥性 등
3	7-68	本草	草部, 木部, 玉部, 石部, 金部, 果部, 菜部
4	69-70	神祕方 및 醫藥 雜記	狂犬咬傷治方 등
5	71-79	察病要訣	"手足痲痹, 風與寒濕…"
6	79-83	傷寒賦	"相類四症, 一曰痰飮…"
7	83-84	傷寒別抄	"陽症似陰, 糞乾而脈滑…"
8	85-87	五藏補瀉(本草)	"心-溫用, 當歸, 芍藥, 吳茱萸…涼用… 補用…瀉用…"
9	87-92	藥材常識	相反藥, 不見火藥, 諸藥補瀉法 등
10	92-162	論病, 治方 및 醫案	楊梅瘡神方單方, 痔疾神方, 論大風瘡, 醫案 등

6) 『찰병요결』과 함께 있는 책들은 대체로 필사본이므로 연대파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지만, 소화 10년(1935년)에 간행된 『土亭秘訣』의 존재를 참고할 만하다.

7) '察病要訣'을 수록하고 있는 또 다른 책, 『경험방』 역시 필사 시기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으로 소급되므로 상기의 추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8) "兩日虐, 久不差, 故用新舊別方, 無效. 又鍼灸, 皆無效. 故唐石硫黃, 八十介式, 沈酒於今夕, 而翌日早, 去木溫服, 次日早, 如此, 又胸痛日早, 如此. 無人不差, 故筆記"(이하 『찰병요결』 원문 표점은 필자가 기재하였다.)

9)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는 이 책이 유일본이라는 점, 이 책이 출판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단순 필기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 역시 이 책의 필사자와 저자가 동일인물이라는 추정에 힘을 싣는다.

10) 1번, 3번, 4번, 9번, 10번의 소제목은 필자가 내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임의로 붙인 것이다.

『찰병요결』에서 1/3이 넘는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동의보감·탕액편』과 內景·外形·雜病篇의 單方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본초 부분이다. 이 부분은 草部, 木部, 玉部, 石部, 金部, 果部, 菜部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草部, 木部에 약 200여개의 본초를 매우 상세하게 필기해 두었다. 草部에서 인삼을 首位로 옮긴 것 외에 약재 순서는『동의보감·탕액편』의 것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본초 부분 이외에도『동의보감·탕액편』湯液序例의 制藥方法과 服藥法, 五味藥性, 煮藥法 및 五臟補瀉,[11] 相反藥, 不見火藥 등을 일부 발췌하여 필사하였다. 이는 이 책의 저자가 약재와 그것의 운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찰병요결』에는 『동의보감·탕액편』 외에도 「溫疫門」의 적소두 단방 치료[12], 「諸傷門」에서 狂犬咬傷에 蚯蚓을 활용하는 방법[13] 등 단방 활용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찰병요결』 傷寒賦는『동의보감』「寒門」의 傷寒相類四證과 傷寒賦를 옮긴 것이고, 傷寒別抄는「寒門」의 傷寒陽證, 傷寒陰證, 傷寒表證, 傷寒裏證 등에서 일부 문장을 가져오면서「積聚門」論五積六聚에서 발췌한 오장의 積에 대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동의보감』뿐만 아니라 앞부분 의약잡기에 나오는 청위사화탕은『濟衆新編』에서 찾을 수 있고, 神祕方에서 生蟹醬과 淸蜜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舟村新方』[14]이나『宜彙』[15]에서 瘡疽 치료에 사용한 것을 응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용문들 가운데 복잡한 의론이나 원리적 측면의 내용이 거의 배제된 점은 대조하여 주시할 만하다.

『찰병요결』의 백미는 후반부에 실린 다수의 의안이다. 이 부분은 전체 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총 140여 개의 의안을 짧고 간결하게 소개한 것이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의안은 '一人', '一婦人', '一老人'과 같이 익명으로 기술되었는데, 이는 한국의학사에서의 다른 의안에서도 빈번히 발견되는 특징이다.[16]

한편 영월군 가전『찰병요결』의안만의 특징은 의안의 서두에 환자의 병증을 밝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一人輪感後, 腹痛難耐…", "一小兒全無痛處, 而自然腰申, 恰似龜背症…"과 같이,『찰병요결』의안에서는 환자의 증상이나 병명이 곧바로 제시된다. 이에『찰병요결』의안에 나오는 병증을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찰병요결』의안의 병증

번호	병증	번호	병증
1	癎疾	72	別無痛處, 飢不食
2	大風瘡	73	夜中虛汗
3	便毒(가리토시)	74	血痲症
4	淫腫	75	手足或節 (不)仁症
5	手背疽大瘡	76	兩脚膝 大似鶴膝風
6	白屑瘡	77	關有偏墮症
7	陰蝕瘡	78	紫刺入于踝肉 不出
8	唐瘡	79	咳嗽
9	疔瘇	80	喘息咳嗽
10	全身瘙痒	81	水土傷
11	前身痘瘡	82	風頭痛眼疾
12	馬瘡	83	全身炎熱頭痛
13	腎囊(閬) 大浮	84	兩足酸痛
14	前陰 瘤	85	龜背龜胸症
15	全身 癬瘡(쇠버짐)	86	痔疾
16	風丹 遍身	87	口熱
17	脚生一片瘇稜	88	痔疾
18	手指 疔	89	以傷寒症 卒死
19	腎孔 內 石堅核	90	木刺
20	乳瘇	91	兩脚痿軟
21	癰癤	92	冷胸痛
22	連珠瘡	93	吐血
23	水腫脚症(수둥다리)	94	落傷而 腰與環跳酸痛
24	項有結核 似連珠瘰癧	95	落傷腰痛不可屈伸
25	癰疽	96	落傷脊骨曲龜背症
26	脚瘇	97	輪感後腹痛
27	手足 俱生 黑子(痣也)	98	兩足不收 曲膝而不伸
28	項後 髮際疽	99	痰在膈間 上壅候
29	大瘇	100	痰壅候中
30	內腫	101	鼻與腮 大浮成 瘡
31	白点斑瘡(얼너리)	102	飛絲入眼 -우뭇가시눈의든때
32	大風瘡	103	無痛處 而自然腰伸 恰似龜胸症
33	瘻瘤	104	全身 幾至死境

11) 오장보사는 오장과 육부, 命門까지 총 12개의 장부에 대해, 각 장부를 溫凉補瀉하는 약재를 설명한 부분이다. 가령 心臟의 경우 당귀, 작약, 오수유, 육계 등으로 溫하고 서각, 생지황, 우슬, 승마 등으로 凉하며, 원지, 복신, 천문동, 토사자 등으로 補하고, 황련, 고삼, 패모, 전호 등으로 瀉한다.

12) "辟瘟疫病取赤小豆新布囊盛之正旦置井中三日出之擧家服男十枚女二十枚無不效"(허준.『원본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2001:530.)

13) "狂犬傷蚯蚓糞封之出犬毛神效"(허준. 상게서. 582.)

14) "且蟹醬, 生淸, 爲好, 不可下針, 只可入藥."(신만.『국역 주촌신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7:416.)

15) "生蟹醬和淸, 塗之. 連珠, 亦效."(금리산인.『국역 의휘Ⅲ』.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9:29.)

16) 이는『의문보감』,『경보신편』,『상한경험방』,『명의경험록』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 및 저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기태.「『醫門寶鑑』에 收錄된 周命新 醫案에 대한 硏究」.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13(1):162-186. 구민석, 오준호.『국역 경보신편』. 광주:수퍼노바. 2017. 박상영, 오준호.『국역 상한경험방』. 광주:수퍼노바. 2016. 이정현.『국역 명의경험록』. 광주:수퍼노바. 2016.)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18.31.2.073

34	腦後瘇	105	腰下生大瘡
35	乳瘇	106	環跳發大癰瘡
36	髮疽	107	痰結膈間
37	足 惡瘡	108	腸癰
38	黑子	109	咳嗽太甚
39	疥瘡	110	丹毒
40	內腫	111	恰似內腫
41	足底 心刺 集成瘡	112	恰似內腫 而腹有癥瘕
42	雜瘡	113	難産
43	水腫脚(수둥다리)	114	胸腹痛 不吐不瀉
44	疳瘡	115	初産 咳嗽頭痛
45	白斑点	116	咳喘久不差
46	連珠瘡	117	環跳酸痛
47	瘴瘧	118	腹中大如小盆
48	虐疾	119	腹中有食塊症
49	回腹痛	120	胸腹痛
50	腹瘧痛	121	産後血塊
51	二日瘧疾	122	血積
52	二日瘧疾	123	魚肉滯
53	腹瘧	124	産後腹脹 似血塊
54	二日瘧	125	胸膈有滿煩息喘
55	脫陰	126	苟痛
56	寸白虫	127	胸腹痛
57	痢症	128	胸腹痛
58	痢疾	129	胸腹間 似有積聚之症
59	痢症	130	胸腹痛如不忍
60	癎疾	131	口眼喎斜
61	癎疾	132	面有喎斜
62	癎驚風症	133	半産
63	癎疾	134	魚骨掛喉
64	中風症	135	眼台中百
65	左邊 偏頭痛	136	胸腹痛
66	正頭痛	137	周環腎底 丕生瘡如楊梅瘡
67	兩足筋縮	138	胸腹間出大瘇如椀
68	咽喉痛, 牙關閉塞, 噤口	139	背痛
69	喉症, 不能語	140	胸腹痛
70	咳嗽胸滿	141	滯症數年
71	酒痰咳嗽	142	眼中紫紗飛入

상기 <표2>를 보면『찰병요결』의 의안이 상당히 다양한 질환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0여 개의 의안은 모두 하나 이상의 병증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부질환부터 학질, 중풍과 같은 중증과 해수, 흉복통과 같은 내과질환을 포괄하고 있다. 특별히 피부질환과 학질, 외상질환이 많은 것은 주시할 만한 부분이다.

상기 병증의 나열은 얼핏 보면 무질서해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사자가 나름의 규칙을 갖고 필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본고에서 임의로 정한 의안 번호를 기준으로, 약 47번까지는 瘡瘍, 癰疽와 같은 피부 질환이 주를 이룬다. 이후에는 瘧疾과 痢疾에 대한 의안이 이어지고, 60번대부터는 간질, 중풍, 두통, 해수, 상한과 같은 내과 질환에 대한 의안이 이어진다. 80번대 이후의 의안은 귀흉증, 치질, 낙상과 같은 雜病과 담옹증, 흉복통과 같은 질환이 주를 이룬다.

위와 같이 의안의 나열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필사자가 중간중간 질환에 관련된 필기를 곁들인 것과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필사자는 瘡瘍, 癰疽 등의 의안을 나열하기 전, 瘰癧, 痘疫, 大風瘡, 連珠瘡, 癬症 등의 질환에 대해서 먼저 논술하고 치법을 적어두었다. 학질과 이질의 의안을 소개하는 중간에도 腹瘧, 兩日瘧에 대한 논술을 적어두거나 僻瘴丹治虐疾神方, 消驚丹治小兒腹瘧 등의 方文을 적어두었다. 단 책의 말미로 갈수록 상기의 현상이 불규칙적인 것으로 볼 때, 이 책이 출간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의약업을 행할 때 상기의 의료 정보들을 옆에 두고 적시에 참고하기 위해 필기해 둔 것이라고 추측된다.

『찰병요결』의 의안은 복잡한 병기나 의론에 대한 내용 없이, 대체로 질병과 처방에 대한 내용이 간결하게 이어진다. 처방은 단순히 첩약에 국한되지 않고 단방이나 외용약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며 비교적 약재의 가감이 단순하다. 의안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필 것이다.

3.『찰병요결』의 의안

본 장에서는 영월군 가전『찰병요결』의 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찰병요결』의 의안들은 다양한 질환을 제각기의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적어두었으므로 명확히 분류하기 어렵지만, 본고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편의상 특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3가지 유형은 각각 신묘한 경험, 외치 경험, 단방 치료 경험이다. 각 유형은 엄밀하게 구분되긴 어렵고 서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필자는 상기의 분류가『찰병요결』의 의안의 모습을 개괄적으로 조명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1) 신묘한 경험[17]

『찰병요결』의 의안 중에는 신묘한 경험을, 의안의 형식을 빌려 기록해 놓은 경우가 다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에 해당

17) 주지하듯이 의안은 의가의 의학수준을 과시하거나, '得病有因', '當禁不禁'과 같은 의학 강령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혹은 본인의 의학적

하는 의안들을 살펴보고 간략히 논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의 의안을 살펴보겠다.

5번.[18] 어떤 사람이 손등에 疽가 생기고 大瘡이 아물지 않았는데, 黃燭, 肉燭, 枯白礬, 松脂, 硫黃 등을 불에 달궈 떡처럼 만들어서 이를 붙이고 누차 바꿔가며 사용하니, 약간 아물고 평평해졌다. 그 후 시험 삼아서 連珠瘡에도 사용해보니, 이 증세에도 빠른 효험이 있었다. 이른바 종창에 신묘한 처방이다.[19]

5번 의안의 환자는 손바닥의 疽와 大瘡不合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黃燭, 肉燭, 松脂와 같이 찐득한 재료에 유황과 고백반을 섞어서 떡처럼 만들어 붙였더니 이 피부질환에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이다. 유황과 백반은 朝眞丹, 吳茱萸散, 秘傳一擦光, 枯痔方 등에 배합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瘡瘍과 癰疽에 특효를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20] 그런가하면『동의보감』에서는 癰疽去惡肉方으로 巴豆膏, 追毒丹, 去惡散, 消蝕散, 鹿角散, 雄黃散[21] 등을 설정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

단 5번 의안의 약은『동의보감』에서 제시한 약들과는 조성이 사뭇 다르다. 오히려 5번 의안의 외치 처방은 문헌적 근거를 쉽사리 찾기 어렵다. 비록 각각의 약재가 다수의 피부질환에 빈용되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본초 조합의 출전을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5번 의안은 일차적으로 당대의 경험의학적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효과가 신묘했던 것을 이론적인 논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록해둔 것이다. 영월군 가전『찰병요결』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의안 기록이 많다. 다음은 치질에 대한 88번 의안이다.

88번. 어떤 사람이 치질을 앓았으나 약이 효과가 없어 참기 어려운 통증이 5-6년이나 되었다. 괴화나무의 벌레를 잡아서 건조시킨 후 가루를 만들어 瘡孔에 넣었더니, 보름만에 창양이 아물고 나았다.[22]

이 의안 역시 일차적으로 의가의 신묘한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괴화나무가 痔出血을 치료한다는 근거[23]는 볼 수 있지만, 괴화나무의 벌레에 대한 문헌 기록은 찾기 어려운 까닭이다. 물론 이것이 필사본 의서의 誤記일 확률도 있으나,[24] 기본적으로는 책에 적힌 글자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음의 의안을 이어서 논의하기로 한다.

85번. 어떤 어린 아이가 귀배 귀흉증이 있었다. 하수오 가루를 거북이 오줌에 타서 한 달을 먹이니 (증상이) 깨끗이 떨쳐졌다.[25]

상기의 귀배 귀흉증에 대한 의안 역시 독특하다. 환자는 오로지 하수오와 거북이 오줌만으로 치료되었다. 귀배 귀흉증에 거북이 오줌을 활용하는 기록을 찾아보면,『동의보감』에서는 '구부러진 척추뼈 주변에 거북이 오줌을 바르라(且取龜尿, 點脊骨節)'[26]라고 하였으며,『本草綱目』에서도 '소아의 귀배에 거북이 오줌에 紅內消(하수오)를 타서 척추뼈마디 부위에 떨어뜨려 주라(小兒龜背, 龜尿調紅內消, 點背上骨節)'[27]라고 하였다. 이처럼 의서에서는 이들 약재를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가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곤 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지닌 의안들은 통상 역대 문헌 중 함께 참고할 만한 문장들이 있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처방을 치료법으로 삼는 것이 공통적이다. 또 의안의 앞뒤로 自評하는 내용 등을 덧붙여 종종 길이가 길고, 기존의 의학지식들을 증험하는 효과가 있다.『우잠잡저』,『명의경험록』,『상한경험방』,『역시만필』 등 한국의학사에서의 의안 중 꽤 많은 영역이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본서의 의안은 단순히 경험하고 유용했던 치료법을, 증상과 치법의 나열만으로 간단하게 소개한 것 많다. 이러한 방식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의학적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보긴 어렵고, 단순히 치험 그 자체를 후대에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본서의 의안은 처방명이 아니라 本草名을 위주로 서술하였고, 내용이 참신한 대신 의학적 근거가 문헌상으로 불명확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특징이 기존 의서의 의안들과는 상이한 점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본고는 '신묘한 경험'이라고 이름 붙였다.

18) 의안 번호는 필자가 지정한 것이다.

19) "有一人, 手背生疽大瘡不合者, 黃燭·肉燭·(쇠기뜸)·枯白礬·松脂(去滓)·硫黃等兮煉, 作餅付之, 換用累次, 少完合易也. 厥後, 試用連珠瘡則 此症快效. 所謂腫瘡之神方."

20)『동의보감』에서는 석유황이 '惡瘡, 下部䘌瘡' 등에 효과가 있고 疥癬虫을 죽인다고 하였다. 또한 백반은 陰蝕과 惡瘡을 치료하고 '鼻中息肉'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허준. 상게서. 748.)

21) "癰疽去惡肉方 癰疽惡瘡中有惡肉若不去則好肉不生瘡口不合宜用藥消蝕之翠霞散方見諸瘡巴豆膏追毒丹去惡散消蝕散鹿角散雄黃散皆可"(허준. 상게서. 541.)

22) "一人痔疾而藥無效, 痛無耐者, 五六年耳. 卽取槐花木蟲, 乾作末納瘡孔, 而限一望 則合瘡則差"

2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동양의학대사전 1』. 서울:경희대학교출판국. 1999:550.

24) 가령『동의보감』에서는 괴화나무에서 자란 버섯을 "槐耳"라고 지칭하며 이것이 '五痔'를 치료한다고 밝히고 있다.(허준. 상게서. 719.) 필사자가 '耳'를 '虫'으로 오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 "一小兒龜背龜胸症, 何首烏作末, 龜尿調和, 服一朔, 則快擧祛"

26) 허준. 상게서. 653.

27) 이시진.『본초강목』. 서울:고문사. 1983:748.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18.31.2.073

모두 외용약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수오와 거북이 오줌을 복용시켜 치료한 기록은 따로 찾기 어려우며, 이 또한 신묘한 경험을 그대로 적어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찰병요결』에서는 문헌상의 출전을 찾기 힘든 경험들에 대하여, 단지 질병과 치방의 정보만을 간략하게 제공한 것이 많다. 이는 질병-치방의 이론적인 관계를 명시하기가 난해하여 이 이상으로 설명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신묘했던 치료 경험을 잊지 않고 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의안을 기록한 것으로 짐작된다.

2) 외치 경험

<표 2>에서 보이듯 『찰병요결』은 전반부에서 다수의 외과 질환 의안을 다루며,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외치법에 대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외과 질환 의안 몇 개를 살펴보기로 한다.

> 7번. 어떤 사람이 陰蝕瘡이 있어서 白雪靈丸을 복용하였다. 이후에 재발하여서, 야산의 도룡뇽 한 마리를 회를 떠서 십 여 마리를 복용한 후에 두부를 조각내어 불을 붙여 열이 오르게 한 뒤 음문으로 7, 8번 누르면서 앉았더니 영영토록 나았다.[28]

7번 의안은 음식창을 앓는 환자에 대한 것이다. 음식창이란 음부가 허는 병증으로 濕陰瘡, 妬精瘡과 함께 陰瘡의 한 종류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열이 하초에 뭉쳐 경락이 막히거나, 부인의 자궁에 썩은 정액이 머무는 등 더러운 것이 쌓여 음부 주변이 붓고 아픈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9] 백설영환은 출전을 찾기 힘든데, 그 빚는 방법은 의안 바로 다음에 소개된다. 웅황, 주사, 고백반, 황단, 월석(붕사), 사향 등의 약재를 합하여 맑은 우물물로 환을 만드는 것이다. 재발한 뒤 복용한 도룡뇽은 성질이 차고 약간의 독이 있으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石淋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30]

한편 이 의안의 핵심은 두부로 음부를 온찜질 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도 음식창 치료에 "枳橘熨法"[31]이라는 온찜질법을 사용하는데, 본 의안에서는 귤피와 지실을 볶아서 온찜질을 하는 대신, 주변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두부를 활용하였다. 두부를 활용한 찜질법은 『본초강목』에서도 볼 수 있는데, 눈이 붉게 부은 경우[32]나 장창[33] 등에 외치법으로 활용하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안은 한국의학사에서는 드문 외치 관련 의안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다음 24번 의안을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24번. 어떤 사람이 목 뒤에 단단한 덩어리 같은 것이 있었다. 연주나력과 비슷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묵어 있었다. 좋은 대추 과육을 가루 내어 참기름에 섞어서 조각을 만든 뒤, (환부에) 여러 번 붙였더니 쾌차하였다.[34]

본 의안은 연주, 나력 같이 생긴 목 뒤의 작은 결절에, 참기름과 대추과육을 섞어 붙여서 치료됐다는 기록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소양경 결핵의 경우 산약과 피마자를 갈아 붙인다거나 痰核에 상륙근, 남성 등을 짓찧어 바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35] 약들을 찧어서 도포한다는 점에서 상기의 의안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주변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참기름과 대추로 이 병을 치료한 것은 신묘한 방법이자, 또 하나의 한국의학사에서는 흔치 않은 외치법 관련 의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음 38번 의안도 살펴보기로 한다.

> 38번. 어떤 사람이 사마귀가 전신에 생겨서 보기에 매우 좋지 않았다. 능장어를 달인 물에 찹쌀을 반일 담가 놓았더니 찹쌀이 매우 부풀었다. 찹쌀을 잘라서 허리 부위의 사마귀에 붙였더니 약간 통증이 있었는데, 그 사마귀에 농이 생기고서 뿌리가 뽑히더니 나았다. ○흑자(사마귀)는 닭에서 나온 기름을 연달아 발라도 스스로 없어진다.[36]

---

28) "有一人, 陰蝕瘡者, 白雪靈丸服之. 後更發故卽 以山野間石龍子(도룡용이라)一介式作膾, 服十首後, 以豆腐作片, 火灸乘熱, 壓坐下門七八次, 永快"
29) "陰蝕瘡者由熱結下焦經絡澁滯或婦人子宮有敗精停留或月水未斷與之交合房勞後又不洗浴邪穢留滯遂令陰莖連睾丸腫痛"(허준. 상게서. 569.)
30) "石龍子 도룡性寒味鹹有小毒主五癃破石淋利水道" (허준. 상게서. 706.)
31) 허준. 상게서. 318.
32) "豆腐熱貼"(이시진. 상게서. 160.)
33) "豆腐熱貼色淡爲度"(이시진. 상게서. 205.)
34) "一人項有結核, 似連珠瘰癧者, 以累年陳. 好棗肉作末, 和眞油作片, 付之累次, 乃快."
35) 허준. 상게서. 565.
36) "一人黑子, 生於全身, 見之極姣故, 眞花子灰(능장어전물), 水侵粘稻米半日, 稻米大漲, 則折米, 腰腎付黑子上以有小痛, 而其黑子濃, 而卽拔根而愈.

사마귀를 치료하는 38번 의안 역시, 완전히 독자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석회물과 찹쌀을 이용하여 사마귀를 치료하는 "去黑醫子方"이 소개된다.[37] 또 기존에는 명아주 재, 뽕나무 가지 재 등의 약재를 붙이거나 뜸을 뜨는 방법 등을 사마귀를 없애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의안을 통해 능장어 달인 물과 닭의 기름도 응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9번. 어떤 사람이 옴(疥瘡)이 매우 심했다. 유황 가루를 날계란과 합쳐서 휘저어 섞고, 온 몸에 여러 번 발랐더니 매우 효과가 좋았다.[38]

39번 의안은 개창을 유황가루와 날계란을 통해 치료한 예이다. 『동의보감』에서 개창은 통상 혈분이 조열하여 피부에 풍독이 심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吳茱萸散, 一上散, 剪草散 등의 약을 응용할 수 있다고 본다.[39] 본 의안의 치료법은 『본초강목』에서 문헌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疥癬을 치료하는 金石 약재로 유황을 소개하면서 계란기름과 함께 개선에 발라주는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다.[40] 본 의안은 이러한 의서 속 외치법을 실제에서 증험한 예시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찰병요결』의 의안은 다수의 외치법을 포함한다. 또 전반적인 『찰병요결』 의안들이 그러하듯, 외치법과 관련된 의안 역시 자세한 병기와 의론에 얽매이기보단 질병과 치방의 경험을 단순히 드러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찰병요결』의 외치법은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과 같은 의서에서 비슷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면이 있다. 날계란과 두부, 참기름 등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재를 실제로 외치법에 고루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당대의 의료가 응용되는 구체적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찰병요결』 의안의 사료적 가치를 알 수 있다.

3) 단방 치료 경험

여기에서는 『찰병요결』 의안을 단방 치료 경험의 맥락에서 살피기로 한다. 단방 치료는 고가의 약재를 구하기 어려운 민간에서 흔히 활용된 치료법이다. 『동의보감』에서도 각 문별 말미에 단방에 대한 기록을 해 두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치료법이나, 이것이 민간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다. 『찰병요결』 의안은 한국의학사에서의 의안집으로는 드물게도 이러한 단방치료에 대한 기록이 많은 까닭에 이 부분을 주시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의안을 살피고 이어서 논하기로 한다.

6번. 어떤 사람이 얼굴에 백설창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 약으로 그것을 닦아내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요강에 있는 오래 묵은 오줌으로 자주 닦았더니 매우 효험이 있었다.[41]

6번 의안에서 환자는 백설창에 묵은 오줌을 발라서 치료했다. 통상 사람의 오줌은 성질이 차다고 여겨지므로 열독으로 인한 피부병에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피부병에 이를 활용한 기록은 드물다. 본 의안은 20세기 초까지 이러한 치료 방식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며, 또한 매우 효험이 좋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의안을 이어서 살피기로 한다.

35번. 어떤 부인이 젖에 종기가 생겼다. 처음 발생할 때 크기가 동이 그릇만하고 통증이 심하여 견디기 어려웠다. 즉시 과루근을 달여 복용시키면서 땀을 내기를 3차례 반복했더니 사라졌다.[42]

35번 의안은 부인의 유종을 과루근만을 복용하여 치료한 예이다. 과루근은 消瘀하고 豁痰하는 효능을 지닌 대표적인 약재로 여겨지는데, 본 의안에서는 과루근의 이러한 약성을

○黑子(사마귀라) 或鷄生油累塗之, 黑子自消."

37) 허준. 상게서. 288.

38) "一人疥瘡太甚者, 硫黃末合鷄卵水攪勻, 塗周身限數次, 則神"

39) "疥瘡有五一日乾疥皮枯屑起宜吳茱萸散
二日濕疥焮腫作痛流汁淋漓宜一上散
三日砂疥細如砂子或痛或痒宜剪草散
…疥癬皆血分熱燥以致風毒剋於皮膚浮淺者爲疥深沈者爲癬"(허준. 상게서. 567-8.)

40) "硫黃雞子油, 搽疥癬. 煅過, 摻頑瘡."(이시진. 상게서. 195.)

41) "有一人面生白屑瘡, 以諸藥拭之無效, 故以溺缸中陳熟溺水 頻頻洗之 快效"

42) "一婦人乳瘇, 初發大如盆 痛甚難耐. 卽以瓜蔞根煎, 飮服取汗三次則, 卽消."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18.31.2.073

적극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神效瓜蔞散[43]과 瓜蔞散[44] 등을 유옹 치료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단 이 의안은 여러 가지 본초를 조합하지 않고 민간에서 급하게 찾아 쓸 수 있는 과루근만을 활용하였으므로, 단방 치료 경험의 항목에서 이를 소개하였다. 다음의 의안을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59번. 어떤 사람이 졸연히 이질의 증상이 생겨 하얀 것이 섞여 나오는데 혹 설사하거나 혹 후중한 것이 여러 달 되었다. 소루쟁이 씨를 잘게 썰어 가루를 내고 꿀에 타서 먹었더니 깨끗이 나았다.[45]

이 의안은 이질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소루쟁이를 활용하여 치료한 것이다. 소루쟁이, 즉 羊蹄는 뿌리와 잎, 열매를 각각 다르게 활용하는데 그중에서도 뿌리는 성질이 평하고 맛은 쓰고 독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를 적백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한 바 있지만,[46] 복용법과 응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본 의안을 통해 소루쟁이 씨를 실제 어떤 방식으로 복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소루쟁이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식물로 오늘날에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앞선 35번 의안과 마찬가지로, 본 의안 역시 민간에서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약재 하나만을 활용하여 치료했으므로 '단방 치료 경험'의 측면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의안을 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 66번. 어떤 사람이 正頭痛이 심하였다. 즉시 작설차 3돈을 하루에 한 돈씩 달여 마셨더니 깨끗이 나았다. 만약 약을 3돈 다 먹은 후에 담을 토한다면 종신토록 다시 아프지 않았을 것이지만, 吐痰하지 않았더라면 십년정도로 한정되어 나은 것이다.[47]

상기의 의안은 작설차를 통해 정두통을 치료한 것이다. 작설차는 苦茶라고도 불리며, 약간 찬 성질에 甘苦한 味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작설은 無毒하고 淸頭目하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지나,[48] 정두통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긴 어렵다. 다만 吐痰이 치료의 관건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볼 때, 상기 의안을 토법을 활용한 신묘한 경험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정두통을 痰과 火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川芎茶調散·一字輕金散·如聖餠子·七生丸 등의 복합처방을 예시할 수 있는데, 본 의안에서는 단지 작설차만을 활용했다. 이에 '단방 치료 경험'의 차원에서 본 의안을 소개한 것이다.

이상으로 『찰병요결』의 의안을 소략히 검토해보았다. 앞서 밝혔듯이 본고에서 설정한 3가지 분류는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편의상의 가정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논의를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각각의 소제목은, 각각의 영역에 대한 당대 의료 지식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신묘한 경험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의학적으로 문헌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로써 민간의료와 주류의 의학이 혼재되어 있는 당대의 의료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치 경험과 단방 치험은 대체로 『동의보감』과 『본초강목』 등의 의서에서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20세기 초에도 이러한 명저의 의학지식이 실제로 임상에서 운용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20세기 조선의 의사들은, 이시진이 저술한 『본초강목』을 재구성하여 저마다의 방식으로 체화하였으며,[49] 이를 단순히 본초서가 아니라 "처방집"의 측면에서 접근했다.[50] 본서의 귀배귀흉증 치료, 두부를 통한 熨法, 계란과 유황을 통한 외치법 의안들은 모두 『본초강목』을 문헌적 근거로 삼으므로, 본서의 의안을 최근 『본초강목』 관련 연구들이 내린 결론에 대한 예시로 볼 수도 있다.

Ⅲ. 결론

본고는 영월군에 소재해 있는 가전 필사본 『찰병요결』

43) "治乳癰及妳巖神效"(허준. 상게서. 272.)
44) "治乳癰未潰速散已潰速斂"(허준. 상게서. 272.)
45) "一人卒得痢症, 如白相出, 或瀉或後重者累月, 卽以羊蹄實(솔곳씨다), 及取乱擣作末和蜜, 服之, 快."
46) 허준. 상게서. 735.
47) "一人 正頭痛甚者 卽以雀舌茶(三錢) 每一錢重式三次, 煎服則快然. 若三錢盡服後 卽吐痰 則終身不復痛. 若無吐痰則 十年限爲差"
48) 허준. 상게서. 743.
49) 오재근, 김용진. 「조선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본초정화』, 『본초부방편람』을 중심으로」. 의사학. 2011;20(1):29-51.
50) 오준호. 「19-20세기 조선 의가들의 '『본초강목』 재구성하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1-7.

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의 원 소유자는 영월군에서 한약업을 한 조주석씨 상서공파의 석영기씨이며 그는 가업을 이어 한약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책이 그의 집안에서 필사된 것인지 단순히 소유만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나마 이 책은 이 책의 서명과 책의 보존 상태, 함께 보관되고 있는 책들의 정황으로 볼 때 20세기 초의 저작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약재의 상식에 관한 내용이 한 축을 이루고, 의안이 또 다른 축을 이룬다. 한국의학사에서 약재와 관련된 필사본 의서는 많지만 의안이 수록되어 있는 의서는 드문 만큼, 이 책은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책의 대략적인 구성을, 의안을 중심으로 학계에 보고하고자 하였다.

영월군 가전『찰병요결』은 다양한 질환에 대한 140여 수의 의안을 기재하고 있다. 이 책의 의안은 대체로 매우 짧고, 복잡한 의론과 병기에 대한 내용 없이, 질병-처방만을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책의 의안은 단방이나 외용약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비교적 약재의 가감이 복잡하지 않다.

본고에서는『찰병요결』의 의안을 크게, 신묘한 치험, 외치 경험, 단방 치료 경험 3가지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상기의 분류는 서로 중복되기도 하며 임의적인 가정이므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의안이 다른 의안 서적에 등장하는 의안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의학사의 기존 의안들은 복합 처방을 內服하는 방법이 대다수이며, 증상-치방을 간단히 소개하는 방식보다는 구체적인 의론과 처방 가감에 대한 논술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세기 초로 추정되는 당대의 의료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 사변적인 의서의 문장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학사에서 희소한 의안 자료가 발굴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181081).

참고문헌

1.『潮州石氏世譜』
2.『察病要訣』
3. 구민석, 오준호.『국역 경보신편』. 광주:수퍼노바. 2017.
4. 금리산인.『국역 의휘Ⅲ』.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동양의학대사전 1』. 서울: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6. 박상영, 오준호.『국역 상한경험방』. 광주:수퍼노바. 2016.
7. 신만.『국역 주촌신방』.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8. 이시진.『본초강목』. 서울:고문사. 1983.
9. 이정현.『국역 명의경험록』. 광주:수퍼노바. 2016.
10. 허준.『원본 동의보감』. 서울:남산당. 2001.
11. 구민석.「『輕寶新篇』의 醫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2. 구현희.「일제강점기 임상한의서『제세보감』연구 -『방약합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35-47.
13. 오재근, 김용진.「조선후기『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본초정화』,『본초부방편람』을 중심으로」. 의사학. 2011;20(1):29-51.
14. 오준호.「19-20세기 조선 의가들의 '『본초강목』 재구성하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1-7.
15. 하기태.「『醫門寶鑑』에 收錄된 周命新 醫案에 대한 硏究」.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13(1):162-186.
16. 안상우 (2016년 10월 13일) "고의서산책309 察病要訣"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9> (2018년 11월 27일)
17. 조선총독부 (1915년 1월 12일 730호)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http://gb.nl.go.kr/Default.aspx> (2018년 11월 27일)